

## 채만식의 『어머니』 개작에 나타난 남성주체의 (반)성장

유인혁\*

### [국문초록]

이 글은 채만식의 『어머니』 개작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채만식의 정치적 (무)의식 및 그것이 반영된 서사적 문법을 점검했다. 특히 남성인물 준호의 성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머니』 개작이 가지고 있는 서사적/역사적 함의들을 재조명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개작이 여성수난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파간다’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물의 성장서사를 내재하고 있는 반정치적 텍스트로 나아갔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본(母本)으로 하는 두 개작, 즉 『여인천가』와 『여자의 일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인물 진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두고 이루어졌다. 『어머니』에는 숙희의 가계가 설명되지 않았으나, 『여인천가』에서는 진주가 러일전쟁에 참가한 군인의 딸로, 『여자의 일

---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생』에서는 ‘혁명가’의 딸로 설정됐는데, 이에 따라 여성인물이 정치적 맥락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개작 양상에 따라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바로 남성인물 준호이다. 세 작품에서 진주(숙희)의 수난사는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준호의 경우 각 작품마다 성장서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각각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역사적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어머니』에서는 준호가 남성적인 성장을 통해 어머니로 상징되는 구습을 극복하고 ‘신학문’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인천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으며, 『여자의 일생』에서는 가능성의 여부가 불확실하게 처리되고 말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개작이 모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맥락을 점점 탈색시키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채만식의 『어머니』 개작과 남성주체의 문제

이 글은 채만식의 『어머니』 개작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채만식의 정치적(무)의식 및 그것이 반영된 서사적 문법을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온 남성인물 준호의 성장과 관련된 대목들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 개작이 가지고 있는 서사적/역사적 함의들을 재조명하겠다.

채만식은 1942년에 『어머니』를 『조광』에 연재했으나, 곧 ‘총독부의 검열’로 중단하고 말았다.<sup>1)</sup> 그런데 1943년에 『여인천가』를 『매일신보』에 연재하며 『어머니』의 내용 상당 부분을 수록했다. 그리고 1947년에는

1) 채만식은 『여자의 일생』의 서문을 통해 『어머니』의 연재 중단의 이유로 총독부의 검열을 꼽았다. 하지만 황국명이 지적한 것처럼 “작품상 특별히 불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머니』의 내용 대부분이 『여인천가』에 재수록되어 있어서 검열의 내용이 해명되지 않는다(황국명(1998),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p. 165).

기존 『어머니』의 내용에 2개의 장을 추가하여 『여자의 일생』으로 개작했다. 1943년의 개작에 ‘총독부의 검열’이, 그리고 1947년의 개작에는 ‘친일’에 대한 속죄와 반성이 위치한다는 것은, 『어머니』 개작 연구에 있어서 제1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어머니』를 모본으로 하는 두 개작, 즉 『여인천가』와 『여자의 일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인물 진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두고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속회는 그 가계가 상세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인천가』에서 진주는 러일전쟁에 참가한 ‘일본군인’ 임경식의 딸로 설정되었으며, 『여자의 일생』에서는 동학농민운동 및 만민공동회 사건에 참가했던 ‘혁명가’ 남병수의 딸로 설정되었다. 진주는 그 설정이 가장 크게 변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작품의 해석은 이를 거점삼아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성인물 준호의 기능과 역할이 과소평가됐다는 점이다. 그는 “왜소하고 나약하다 못해 소멸하는 존재”여서, 역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됐다.<sup>2)</sup> 또한 준호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풍물지」의 장은 “플룻의 수평전 전개를 방해, 지연”하거나, “박씨 부인이 중심이 된 가정사에 종속”되어 있는 삽화로 인식됐다.<sup>3)</sup> 여기서 준호의 서사는 부차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처럼 보인다.<sup>4)</sup>

2) 심진경(2002)은 이러한 나약한 남성상이 “친일적 상황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시대 남성 작가가 마련한”, 일종의 “변명의 장치”라고 주장했다(심진경, 『채만식 문학과 여성: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여인천가』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p. 70).

3) 류종렬(2014), 『한국 근대소설의 탐구』, 푸른사상, p. 133; 류동규(2013), 『채만식의 『어머니』 개작과 식민지 전사(前史)의 재구성』, 『어문학』 120호, 한국어문학회, p. 453.

4) 『어머니』 개작에서 남성인물을 주목한 경우가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수는 『어머니』가 표면적으로는 “여주인공이 불행한 결혼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갈등을 풍속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작품이라 설명하며, 실제로는 “혁명가인 남진사의 생애를 그리”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 것으로 파악했다(이래수(1986), 『채만식 소설연구』,

하지만 『어머니』 개작을 이해함에 있어 남성 서사가 차지하는 지분을 계측하지 않는다면, 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어머니』의 개작들이 보여주는 서사적 차이가 여성의 이야기에 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주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개작들은 모두 여성 수난사로 수렴된다. 『어머니』의 숙희, 그리고 『여인천기』와 『여자의 일생』의 진주는 모두 ‘모성적 삶의 완결성’을 표상하는 인물들이다. “인내하는 어머니의 정과 그것의 궁극적 승리”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일반성”은 역사의 흔적과 현실을 ‘장식적인 배경’으로 밀어내는 측면이 있다.<sup>5)</sup> 세 작품에서 진주(숙희)는 모두 이상적인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상냥한 아내이자 어른스러운 며느리이다. 이 여성은 작품에 따라서 일본 군인의 딸이 되고 혹은 혁명가의 후예가 되지만, 그것이 여성수난사의 플롯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성인물 준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개작에 따른 텍스트의 변화는 보다 역동적으로 포착된다. 진주의 수난사가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되는 동안, 준호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서사는 약화되었다가(『여인천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여자의 일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연구의 미답지로 남아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어머니』 개작을 남성인물 준호의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다만 여성수난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성장서사의 축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임을 증명하여, 확장된 텍스트 해석을 가능하게 하겠다. 또한 채만식이 남성 주체

---

이우출판사, p. 122). 송하춘은 『어머니』가 “여인의 수난사”를 주로 하면서도 “친정 할머니와 친정 어머니가 겪는 고난의 역사는 혁명가인 남편들의 고난사”와 일치한 다며 따라서 “아내인 ‘진주’는 전근대적 조혼에 의한 희생양이고, 남편인 ‘준호’는 근대적 자각으로 인한 속죄양”의 성격을 가진다고 분석했다(송하춘(1994), 『채만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p. 41).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그러나 이것은 남진사의 출현이 『여자의 일생』 개작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과한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

5) 황국명(1998), p. 166.

의 성장, 혹은 좌절을 통해서 표현한 정치적 (무)의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록 하겠다.

## 2. 『어머니』에 나타난 미숙한 소년의 성장과 죽음

이 장에서는 『어머니』에서 남성인물 준호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준호의 성장이었다는 사실을 보이겠다. 이렇게 『어머니』의 성격을 정초하는 것은, 뒤이어 이어질 『여인천가』와 『여자의 일생』 분석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채만식의 『어머니』는 여성수난사로 인식되어 왔다. 심진경은 『어머니』와 『여인천가』, 『여자의 일생』이 모두 “어린 신랑과 결혼한 구여성의 인생역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남성주체는 배경으로 물러나거나 소멸되고 대신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성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sup>6)</sup>는 서사, 즉 “구여성의 수난”<sup>7)</sup>의 서사로 이해했다. 신승희도 『어머니』를 “어리고 착한 숙희가 늙고 심술궂은 시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핍박당하다가 비극적 결말에 이르든지, 반전을 통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정소설로 파악했다.<sup>8)</sup> 류동규는 『어머니』가 “구시대 여성 주인공들을 설정하여 개화기의 조흔 풍습 및 시집살이의 파국을 그린 풍속소설”<sup>9)</sup>이라고 보았다.

6) 심진경(2002), p. 64.

7) 심진경(2006), 『통속과 친일, 이종동형의 서사논리 : 채만식의 『여인천가』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p. 105.

8) 신승희(2010), 『채만식의 『여인천가』론』, 『새국어교육』 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 725.

9) 류동규(2013), p. 447.

채만식의 『어머니』는 분명 여성수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 숙희는 ‘꼬마신랑’ 준호와 조흔한 여성으로 히스테리를 앓는 박씨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준호의 모친 박씨 부인은 ‘단산기’의 히스테리 때문에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의 병을 얻은 인물로 나타난다. 박씨 부인은 숙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강렬한 의심을 품고 있다. 이는 추후 숙희가 준호를 살해하려 했다는 망상으로 발전한다. 결국 숙희는 구여성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운명, 즉 소박을 맞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sup>10)</sup>

그런데 『어머니』의 서사는 며느리 숙희의 수난사 외에도 또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소년 준호의 성장담이다. 준호는 미성숙한 신체의 소년이다. 그는 한창 성장기의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발육이 정지된 것처럼 작고 여위었다. 이는 박씨 부인의 과잉한 훈육 때문이다.

자식을 엄히 길러서 물론 나쁠 머리는 없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그 엄격한 아버지 노릇도 하여야 하던 것이지만 일변 지극한 자애를 가지고 임하여야 하는 실로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없지 아니한 몸이었다. 그리하건만 자애란 고물도 비치는 것이 없고 그저 엄히 하면서 가혹히만 굴기로 주장이었다. 그도 남의 어머니거든 하물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고 마음에까지 소중하고 사랑겨웁지 아니하다면 오히려 빈말이리라. 사실 마음으로는 끔찍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면서도 일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말 한마디 낫색 한번 상냥히 하여 주지를 아니하였다. 결국 그리하여 박씨 부인은 자식을 엄히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학대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는 어머니라기보다도 소년의 사지를 퐁퐁 결박짓고 머리를 내리누르고 하는 무형의 밧줄이요 무형의 바윗돌이요 할 따름이었다. 그의 훈육방침은 활발히 뛰놀고 맘대로 웃고 소리지르고 하면서 씩씩히 자라갈 열두살박이 선머슴더러 부처님

10) 채만식은 시집에서 쫓겨오는 것이 실제로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음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소박을 맞은 뒤 첩으로 전락한 여성, 술집 작부가 된 여성, 목을 메고 자살한 여성의 삽화 속에서 드러난다.

같이 얽전하고 시집 온 새각시같이 말치 없기를 고문하는 형틀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sup>11)</sup>

박씨 부인은 서른한 살 때 과부가 된 이후 외아들 준호를 홀로 길렀다. 그녀는 “언변 좋고 감대 팔팔”한 성품으로, “삼백여 호나 되는 이 향교골 온 마을을 쥐락펴락”한다.<sup>12)</sup> 하지만 이러한 ‘여장부’적 성격은 준호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녀는 준호를 “끔찍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소년의 사지를 푹푹 결박짓고 머리를 내리누르고 하는” 엄한 훈육 자세를 고수한다. 특히 소년 준호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준호는 십리가 넘는 먼 길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쉬는 대신 ‘건넌 마을의 글방’에 간다. 글방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밤참이나 먹고 하면 향용 한 시 때로는 두시가 가깝다.”<sup>13)</sup>

또한 박씨 부인은 준호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다. 박씨 부인은 결혼한 아들을 자신의 침실에 재우고 있다. 이는 박씨 부인이 “늘어가는 청상이 갓 피어나는 젊음에 대해 갖는 병적 증오심” 때문에 숙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며느리와 의 삼각관계에서 오는 아들에 대한 독점욕”이 개입한 결과이다.<sup>14)</sup> 즉 박씨 부인은 준호의 결혼생활을 교란함으로써, 그를 ‘어린 아들’로 고정시키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sup>15)</sup>

하지만 준호는 성장기의 소년으로서, 남성주체가 되고 싶다는 자연스러

11)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4월, p. 185. 『어머니』 텍스트는 『조광』의 연재본을 기본으로 하되, 『채만식전집』을 대조하며 현대역 했음을 밝혀둔다.

12)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3월, p. 184.

13)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3월, p. 182.

14) 신승희(2010), p. 728.

15) 박씨 부인은 칼 용이 말한 ‘무서운 어머니’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 어머니’(terrible mother)는 “잡아먹는 어머니”(C. G. 융(2006),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영웅과 어머니 원형』, 2006, 솔, p. 26)로서, 아이를 삼켜서 죽이는 어머니이다. 이러한 모성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은, 지나친 애착으로 인하여 과보호를 일삼아 소년의 정당한 성장을 방해할 때이다.

은 욕망을 품는다. 준호는 밤늦게 글방에서 들어와 숙희와 동침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미숙하지만 성적 주체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이 암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준호는 어머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 남성적 포래집단 속으로 편입하려는, 상징적 이유(離乳)의 욕망으로 나타난다.<sup>16)</sup>

이다지도 재미있는 ‘서리’하며 그 밖에 동무아이들이 하고 노는 장난이 소년 준호에게는 그러나 모두가 그림 속의 떡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장난을 엄히 금하는 단속을 늘 받으면서 만약 범하였다 탄로가 나든지 하면 무서운 형벌을 당하면서 골샌님 본으로만 치어 난 그는 영영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좀처럼 장난판에 걸 생심부터 하지를 못한다.<sup>17)</sup>

준호는 동년배 아이들과 함께 ‘짓곳은 장난’을 치고 ‘악동’ 노릇을 하고 싶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공포는 준호로 하여금 포래집단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획득하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을 막는다. 하지만 추석 읍내에 난장이 서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자 준호는 인내심을 잃어간다. 특히 “늠름한 체격”에 “활달한 기상”을 가지고 있어 준호의 ‘영웅’인 동년배 윤석이 유혹하자 용기를 냈다.

난장마당은 이름 그대로 난장(亂場)이었다.(…)소위 반상의 구별 같은 것은 전혀 가림이 없다. 제로라는 집안의 서방님이, 활랑패가,

16) “청소년기는 가족관계에서 점차 벗어나 친구관계에 참여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기이다(조성남·박선웅(2001), 『청소년 하위문화와 정체성 정치』, 『사회과학연구논총』 7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1, p. 119). 또한 청소년들은 대개 포래 집단에 관심이 쏠려 있고 “자기 가치감이 포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F.Philip Rice (2001), 정영숙·신민섭·설인자 편역, 『청소년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1, p. 186).

17)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5월, p. 156.



생원님이, 붉은 다리의 상일꾼이나 머슴 따위는 보통이요 남의 집 하인배니 전일의 사령배니 심지어 재인 도한이와 어엿이 한판에 어우러져 가지고(…) 사이 좋게 혹은 핀잔 먹어가며 승부를 겨룬다.<sup>18)</sup>

이후에 펼쳐지는 읍내행은 말 그대로 난장(亂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곳은 반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갖가지 계급의 인간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노름과 싸움 등 평소라면 금지되어 있는 행동들도 “말리는 손은 흑시 있어도 금하는 손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치외법권이 있는” 무법 시대에는 준호가 동경해 마지않는 남성의 세계가 있다.<sup>19)</sup>

이로부터 씨름은 급속도로 돌구어 올라가 삼시간에 총각 씨름으로 커버렸다. 소 같은 장정의 떠꺼머리총각들이 연방 달려들어 한바탕씩 우지끈우지끈 살이 찢어지는 듯 뼈가 통겨지는 듯 무시무시하게 걷고 틀고 뛰고 하다가곤 궁궁 나가 떨어지곤 한다. 총각 상씨름이 고비가 차면 그 다음 어른 씨름으로 넘어가야 한다.<sup>20)</sup>

씨름판에서 청년들은 “살이 찢어지는 듯 뼈가 통겨지는 듯” 충돌하며

18)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8월, p. 167.

19) 김홍기는 『어머니』에 나타나는 추석을 두고 “안으로 가족과 친척, 밖으로 이웃과 민족 전체가 동질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로 이해했으며, 박씨 부인은 준호와 숙희(진주)가 민족적인 제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압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알레고리인 것으로 파악했다(김홍기(2001), 『채만식 연구』, 국학자료원, p. 217). 최유찬은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진주를 ‘핍박’받는 조선 민족의 알레고리로 읽어들이고 박씨 부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시어머니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최유찬(2006), 『문학의 모험』, 역락, p. 306). 여기서 김홍기와 최유찬은 준호가 참가하는 추석이 다만 민족적 제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법의 난장(亂場)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준호와 숙희에게서 민족적 제의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박씨 부인이 스스로는 추석을 맞아 원유(遠遊)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을 일본 제국주의의 알레고리로 파악할 경우, 준호의 단발을 금하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20)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8월, p. 175.

힘을 뽐낸다. 이곳은 원초적이며 폭력적인 에너지가 들끓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체험은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떠들썩한 통과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준호는 난장에서 만난 ‘애꾸눈’에게 위협을 당한다. 그는 “누런 이빨로 웃으면서 허리를 꾸부리고 바싹 들여다”보는가 하면, “구린내나는 입”을 준호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리고 “어디루 들쳐 업구 가”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다. 이러한 ‘불결한 희롱’은 분명 성적인 위협을 암시하고 있다. “히히히! 초립동이 상투……오래 산대르서?”라는 대사로 보아, 준호가 표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상투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을 당한 끝에 준호는 어머니의 숙박을 이겨낼 결심을 했다. 그는 “모친에게 매를 맞아 죽더라도 이 야속스런 상투를 잘라버리”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다. 즉 이 장면이 암시하는 것은 “계집아이 처럼 숫기 없는 소년” 준호가 “강한 일광이요 비바람”과 같은 “퇴약은 시련”<sup>21)</sup>을 통해서 어머니의 숙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2)</sup>

그런데 『어머니』에서 준호의 성장은 미완, 혹은 실패로 끝났다. 더 정확히 말해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 준호는 난장에서 한 군것질이 탈이 나 복통을 앓게 된다. 그런데 박씨 부인은 이것을 두고 숙희가 준호를 독살하려고 비상이나 양젓물을 먹인 것으로 오인했다. 박씨 부인의 광증은 극에 달했는데, 숙희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준호에게 독극물을 먹일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결국 숙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21)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8월, p. 170.

22) 송하춘은 이 대목을 “민족적 자각과 근대적 각성으로 귀착”되는 성장으로 파악하고 있다(송하춘(1994), p. 42). 송하춘의 논의는 준호의 성장과 근대성의 문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그 근거가 『어머니』와 『여자의 일생』을 혼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는 숙희를 진주로 표기하고 있으며 『어머니』에 “혁명가인 남편들”이 등장한다는 등 내용파악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박씨 부인은 무심코 돌려다 보았다. 준호가 비상을 탔다던 소위 사약보시기를 집어다 마셔버리고는 마약 옆드리던 참이였었다. 박씨 부인은 놀라지도 당황하여 하지도 않고 도리어 눈을 흘기면서 끝끝 혀를 찬다. “어머니! ……” 처량히 한번 부르고 준호는 설움이 복받쳐 흑흑 느껴 운다.<sup>23)</sup>

이 장면의 의미는 양의적이다. 우선 준호는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순간 죽음을 선택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무서운 어머니 박씨 부인이 준호를 삼켜버렸음을 의미한다.<sup>24)</sup> 준호는 결국 어머니의 폭력으로부터 숙희를 지켜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머니의 금지로부터 자신의 욕망을 지켜내지 못했다. 따라서 준호의 자살시도는 성장의 궁극적인 실패를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준호의 죽음은 어머니의 금지를 초월하는 행위일 수 있다. 준호는 막 난장에서 어머니의 속박을 벗어날 다짐을 한 참이었다. 그리고 모성이 부여한 생명의 거부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저항으로 읽히기도 한다.

### 3. 『여인전기』와 남성 성장서사의 제거

이 장에서는 『어머니』에서 『여인전기』로의 개작과정에서 이루어진 서사적 변형 및 정치·역사적 맥락의 수정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여인전기』에서 소년 준호가 담당하고 있었던 성장서사의 역사적 맥락이 사라짐에 따라, 반정치적 서사의 성격에 이르게 되는 지점을 살

23)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10월, p. 160.

24) 용의 이론에서 유아의 성장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모든 감상적인 유대를 끊어야 하는 결단”을 동반한다(C. G. 융(2006), p. 232).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을 지나, 아내를 얻는 과정 속에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준호의 죽음은 이 두 가지 과업의 실패를 암시하고 있다.

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여인전기』를 『어머니』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연구들은 대개 숙희(『어머니』)와 진주(『여인전기』)의 차이에 주목했다. 즉 『어머니』가 풍속소설 및 가정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여성 숙희의 고난과 조혼의 비극을 다루었다면, 『여인전기』는 ‘시국’을 반영한 소설로서 ‘내선일체론’에 입각한 군국의 어머니를 다루는 서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어머니』에서 『여인전기』로 넘어가며 작품의 성격이 급속도로 정치화되었다는 의견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정치적 ‘성숙’은 대체로 『어머니』의 서사가 확장된 결과로 이해됐다. 『여인전기』에는 『어머니』의 내용이 액자처럼 삽입되어 있다. 『어머니』의 내용은 커다란 변화 없이 삽입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여인전기』의 의미는 진주의 이야기에 무엇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서사가 어떠한 가능성을 획득했는지를 중심에 두고 탐구되었다.<sup>25)</sup> 그러나 이 장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즉 『여인전기』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쌓아올리기 위해 『어머니』에서 배제해야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 ‘결락’이 작품에서 어떠한 미래를 삭제했는지, 혹은 창출했는지 탐구해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준호의 성장서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역사적 대표성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인전기』는 3장부터 5장까지 『어머니』의 문장을 다소 수정하는 수준에서 옮기고 있다. 하지만 유독 준호의 읍내행 부분만은 면밀하게 삭제했다. 준호와 친구 윤석이 읍내에 다녀오고 이를 통해 준호가 복통을 앓는다는 대강의 사건은 남았지만,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난장’의 경험이 모두 사라졌다. 이를 통해 일어난 서사적 변형, 혹은 손실이 무엇인지

25) 심진경은 “소설 속에서 왜곡되는 과거는 바로 여성의 가계”로 설명하고 있다(심진경(2002), p. 70). 신승희 역시 “『여인전기』와 『여자의 일생』의 후반부 내용이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과 가계의 변화를 함께 분석했다(신승희(2010), p. 724). 류동규는 “『어머니』가 개화기 풍속을 묘사하기 위해 설정한 주인공”들이 ‘군국의 어머니’와 ‘혁명가의 후예’로 정치화됐음을 주목했다(류동규(2013), p. 448).

는 이 읍내형 시퀀스의 첫 번째 대목에서 암시되어 있다.

ㄱ)

“너 읍내 구경 참 좋다야! 난장이 터지구 협률사가 들오구, 그리구 초라니패두 들왔어. 너 협률사 곳 못 봤지 어때? 흥동지 박첨지 허는 초라니패랑?”

“.....”

“난 어저끼두 갔다왔어…… 너 참 나 어저끼 씨름 몇 허리 이긴 줄 알아?”

“.....”

“스물세 허리 이겼어. 스물세 허리! …… 스물세 허리간 사이 모두 넷이나? 이 대님이랑 그리구 이 염낭이랑 또 그리구 울어머니 드린 왜포수건이랑 모두 어저끼 탄 거야.”

“.....”

“너 그리구 참 오늘이 마지막이다! 난장두 마지막이구 협률사랑 초라니패랑 오늘꺼정만 놀구 나간대. 난장은 그리구 오늘이 소씨름야 소씨름…… 하, 소씨름 참 무섭구 재밌다야. 소 따가는 소씨름……”

“.....”

“느머니가 못 가게 허니?”

준호는 고개만 잘래잘래 젓고 윤석이 고쳐

“그럼?”

“.....”

“그럼 초립동이 싸개 맞을까바서?”

“.....”

“나허구 가문 일없어. 깐놈들 내가 다야 혼내줘.”

“갔다 언제 오구?”

비로소 준호가 한마디 묻는다.<sup>26)</sup>

26)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5월, p. 161.

ㄴ)

“너 읍내 구경이 어떻게 존데 그래? 난장이 터지구 협률사가 들와 놀구…… 춘향이 이도령 히는 협률사 말야! 난 어저끼두 갔다 왔단다! ……너 참, 나 어저끼 씨름 몇 허리 이긴 줄 알아? 하, 스물세 허리 이겼어, 스물세 허리! 스물세 허리간 상이 모두 넷 아냐? 이 대님이랑 그리구 올 어머니 가져다 드린 애포수건이랑 다 어저끼 상탄 거야! ……너 그리구 참 오늘이 마주막이다! 협률사두 오늘 저녁 꺼정만 놀구, 씨름판두 오늘 있다 맨 나중 소씨름허구 나쁜 고만야! 하, 소씨름이 어떻게 무섭구 재밌는데 그래?”<sup>27)</sup>

ㄱ)과 ㄴ)은 각각 『어머니』와 『여인천가』의 읍내행의 도입부다. 두 텍스트 모두 윤석이 씨름판에서 내리 이겼다는 전적을 뽐내며 준호를 꼬드긴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며, 대사 역시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ㄴ)은 ㄱ)과 달리 준호가 난장에 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를 캐묻는 두 개의 대사가 삭제됐다. 즉 박씨 부인에 대한 두려움을 캐묻는 대사와(“노머니가 못 가게 허니?”), 상투와 관련된 공포증을 자극하는 부분(“그럼 초립동이 싸개 맞을까바서?”)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반대로 『풍물지』의 내용을 준호의 어머니와 상투에 대한 심리적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읽어봄으로써, 읍내행의 삭제에 따라 일어난 서사적 변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준호의 상투 콤플렉스를 살펴보자. 준호의 상투 콤플렉스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준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콤플렉스이다. 준호의 상투는 미숙한 육체의 환유이다. 준호가 쓰고 있는 것은 초립으로, 성례를 치른 소년이 쓰던 것이다. 준호는 또래에 비해서도 성숙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어른의 표식인 상투는 미성년(未成年)인 준호의 신체를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어른들의 세계를 선망하는 한편, 두려워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27) 채만식(1989), 『여인천가』, 『채만식전집』 4권, p. 358. 이후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

총각 상씨름이 고비가 차면 그 다음 어른 씨름으로 넘어가야 한다. 판장은 적당히 때를 헤아려 마침 다섯 허리의 연승이 난 기회에 준례대로 상을 베풀고는 뚝 떨어져서 조막만한 초립동이를 햇씨름으로 손목 잡아 끌어낸다. 관중으로부터 와그르 웃음이 터진다. 준호보다도 차라리 작은 초립동이었다. 덜씩 큰 장정 총각 목은씨름과 그의 다리 하나 푼수도 못되는 초립동이가 격식 찾아 고의춤 마주 잡고 착 어우러져 돌면서 유유히 씨름을 벌인다. (...) 초립동이가 수두룩하다고 하지만 아주 어린 열두어살박이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다. 자연 앞았느라면 물색하는 판장의 눈에 뜨일 것이요, 뜨이면 억지로라도 끌려나가는 것이요, 나가서는 씨름을 하고 메어다꽂히고 할 것이요 하니 두루 망신일밖에 없는 것이었다.<sup>28)</sup>

난장에서 준호가 특히 매료되어 있는 것은 바로 씨름판이다. 이것은 친구 윤석이 씨름 구경을 미끼로 준호를 꺾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준호는 씨름판이 무르익자 그곳에서 도망친다. 판장이 “열두어살박이” 초립동이를 장난삼아 어른과 맞붙여 망신을 줄까 겁이 났던 것이다. 여기서 초립은 어른의 상투에 방불하지 못하는 왜소의 상징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투는 개화기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특히 남성주체에게 부여된 집단적 콤플렉스를 표현하고 있다. 고종의 단발령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나듯이, 상투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구습이었다.<sup>29)</sup> 이것은 준호가 난장에서 마주치는 원선생의 말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원선생은 지지리 생도들더러 머리깎기를 권하고 주장하였다. 눈치 보아 그 부형이 과히 반대를 앓는 생도면 교원실로 데리고 들어

28)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8월, p. 175.

29) 개화기 단발령은 전통적 지식인과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윤정·전혜숙(2011), 『19세기말 단발령과 상투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4권 2호, 한복문화학회를 참조.

가 상투랄지 머리채를 썩둑썩둑 가위로 잘라주기도 하였다.(…) 상투 틀구 망건 쓰구 너털너털 중추막입구, 그라구설랑 위땡게 활발하게 체조랑 경주랑 허나? 위땡게 문명사회에 나가 활동을 허나?<sup>30)</sup>

원선생은 “낡은 것을 깡그리 배척하며 신문명의 예찬과 그를 급속히 받아들이기를 주장하는 ‘개화꾼’”으로, 향교골에 지구의와 환등, 풍금을 도입한 인물이다.<sup>31)</sup> 여기서 원선생은 상투를 잘라야 하는 이유로 위생상의 문제 외에도 ‘체조’와 ‘경주’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상투는 신체의 활력을 내리눌러, 문명사회를 건설할 힘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투는 “낡은 사상·학문·습관·전통·제도”<sup>32)</sup>를 드러내는 신체적 표징과 다름없다.

이러한 신체적/사회적 차원의 상투 콤플렉스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하나로 결합한다. 바깥 말해 『어머니』의 서사는 준호의 신체적 열등감과 시대의식을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통해 융합시키고 있다. 채만식은 박씨 부인의 엄격한 훈육이 소년 준호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박씨 부인이 강요하는 교육은 대부분 ‘구학문’, 즉 ‘한문’이다. 박씨 부인은 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신학문을 배워야 관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지, 여전히 사서삼경을 읽을 줄 알아야 ‘양반’이자 ‘선비’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준호는 새벽까지 글방에서 한문을 배워야 했다. 따라서 준호가 상투를 자르고 싶어 하는 것은, 한문을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과 긴밀히 연결된다.

준호는 초립과 망건을 벗다가 그 끝에 문득 생각이 나서  
 “난 언제나 머리를 깎우!”

30)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6월, p. 154.

31) 즉 천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매체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32)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6월, p. 158.



“그래두 아무 때구 어머님이 깎아라 헤세예죠!”  
 “꼭 죽겠는걸!”  
 “애야 어머님 허락 없인 깎지 말아요 응?”  
 “서울루 유학 갈땜 깎으라실까?”  
 “서울루 공부 가라시나요?”  
 “지끔은 한문 공부 만날 소용 없대! 서울 가서 신학문 학교공부 많이 해예지 허지……”<sup>33)</sup>

여기서 상투를 자르는 행위는 서울에 가서 신학문을 배운다는 출세(出世)의 욕망과 긴박되어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준호가 가진 신체적 콤플렉스는 사회적인 것이 된다. 그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박씨 부인으로 대표되는 ‘구세대’의 불합리한 유산 및 악습 때문이다. 상투는 박씨 부인이 준호를 신체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게 묶은 ‘보이지 않는 밧줄’이다. 그것은 “박씨 부인 대신으로 (….) 머리 위에 올라앉아 그의 일동일정을 감시 제약하는 눈초리”<sup>34)</sup>와 같은 힘의 현현이 된다.

정리하자면 『풍물지』의 삭제는 준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사회적 콤플렉스의 내용을 약화시켰다. 『어머니』와 달리 『여인천가』에서는 소년 준호의 미숙함이 표현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맥락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준호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여인천가』에서 준호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요절한다. 그의 미래가 변변찮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 읍내행의 장면이 사라졌을 때 결정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와 『여인천가』 사이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간극이다.

채만식이 준호의 서사를 축소한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힘들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사적 축소가 만

33)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4월, p. 188.

34) 채만식, 『어머니』, 『조광』 1943년 5월, p. 157.

들어내는 효과를 중심으로, 채만식의 의도를 거꾸로 추정해야 하겠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준호의 성장서사가 사라진 것은 주인공이 진주로 바뀌는 결과를 야기한다. 서사 내부에서 준호의 지분이 축소됨에 따라, 『여인천가』는 본격적인 여성수난사로 변모한다. 즉 진주의 “시집살이하든 이야기, 쫓겨가든 이야기, 서울루 가서 지나든 이야기”<sup>35)</sup>, 그리고 아버지 없는 남매를 고생하며 기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난은 진주의 주체적 성장과 더불어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새출발』에서 서울로 올라가 신학문을 익힐 것을 결심했다. “인생의 첫출발을 낭패당한 고민과 그리고 장차 몸을 어떻게 처하는가 하는 향방이며 결심이며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한 결과였다. 『새출발』이라는 표제는, 구여성 진주가 사실상 사회적 죽음이라 할 수 있는 파혼을 맞아 좌절하지 않고, 주체적인 신여성으로 성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가 서울에서 만난 청년 오영달 및 추영산과 연애를 하는 이야기는 『위기』라는 표제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준호를 다시 만나 살림을 차리는 내용은 『의』로 나타났다. 진주는 준호와 재회하는 순간 “여섯 해 전 그 당시로 돌아가”, “상냥코 다정스럽던 준호의 새댁이요, 암전한 며느리요, 애련한 시골소부”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6년에 걸쳐 신학문을 익히는 ‘새출발’의 과정은 “여섯 해의 긴 꿈”이 되었다.<sup>36)</sup> 이후 진주는 준호와 사별하고, 바느질 품삯으로 아이들을 기른다. 그리고 결국에는 향교골로 돌아가 가문의 안주인이 된다. 마치 박씨 부인이 일찍 사별하고 준호를 기른 것처럼, 진주 역시 일찍 준호를 잃고 문주와 철남매를 기르는 가문의 여주인이 되어, 여성의 삶을 ‘계승’한다. 즉 『여인천가』의 서사 내에서, 진주는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종 일관 ‘모성’을 유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서사가 지니고 있는 외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준호의 성장서사가

35) 『여인천가』, p. 329.

36) 『여인천가』, p. 425.

사라진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즉 준호의 성장서사가 사라짐으로써, 작품이 갖는 역사적·정치적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물음의 대답은 모호하다. 우선 준호의 성장이 그대로 이루어졌어도 ‘친일’적인 서사의 구성이 가능하다.<sup>37)</sup> 오히려 『어머니』에서 준호의 성장은 일본제국주의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컸다. 극중 ‘개화사상’의 전파자인 원선생은 경성의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신학문을 익혀서 “일본의 명치유신과 및 그 오십 년 미만에 진보 발달한 형태”를 본따, 궁극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문명한 모양”에 한층 다가가기를 권유했다. 따라서 준호가 주인공의 지위를 유지했다면, 보다 ‘친일’적인 정치적 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었다.

게다가 진주의 수난사는 『여인천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채만식은 “내지의 어머니들은 이천육백여 년을 두고 한결 같이 나라를 위하여 아들네를 전지에 내보”냈지만, “나라 위할 줄을 모르고 오직 자아본위, 가정본위, 오직 일가족속본위로만 살아온 조선 백성은 따라서 어머니들의 군국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막상 『여인천가』의 내용에는 ‘일가족속본위’를 넘어 ‘멸사봉공’하는 ‘애국청년’이 어떻게 양육되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여인천가』는 “가진 고난과 곤궁을 겪으면서 그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서 충성스러운 황국군이 되게 한 군국어머니의 피눈물을 나는 인생”<sup>38)</sup>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충성스러운 황국군’을 길러내는 “도저한 도야와 훈련과 그리고 자각”<sup>39)</sup>이 어떠한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37) 방민호는 『어머니』의 중단 이유를 추측하는 가운데 “상당한 분량을 두고 전개되는 조선 풍속의 묘사”, 즉 『풍물지』의 내용을 주목했다. 조선총독부가 “일선용화를 이완시킬 만한 소지가 있는 작품”으로 보았다는 것이다(방민호(2001),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pp. 311-312).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풍물지』에 개화세력을 상징하는 원선생 등의 인물이 등장하고, 조선적 구습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역동성이 감지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8) 『매일신보』 1944년 10월 4일.

“가진 고난과 곤궁을 겪으면서” 생활하는 여성의 모습만이 부각되었다. 진주의 아들 ‘철’과 이복 오라비가 일본군으로 등장하기는 하나, 이것은 1장과 6장, 13장에서 아무런 개연성 없이 삽화처럼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sup>40)</sup>

정리하자면 『여인천기』에서 성장서사의 축소는 여성수난사의 서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황국군을 양육하는 ‘군국어머니’의 서사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군국의 어머니’ 담론이 비판하고 있는 ‘자아본위’, ‘가정본위’의 여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 『여인천기』는 표층적인 수준에서는 노골적인 ‘친일’을 표방하지만, 사실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일가족속본위’가 강화되는 반시국적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이것이 바로 준호의 서사가 사라지면서 『여인천기』에 가해진 변화였다.

#### 4. 『여자의 일생』과 나약한 주체의 계승

이 장에서는 해방 후 이루어진 『여자의 일생』 개작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1) 『여자의 일생』은 『여인천기』와 유사한 프로파간다인가? 2) 준호의 성장서사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우선 『여자의 일생』이 『여인천기』와 마찬가지로 강한 정치적 지향을

39) 『여인천기』, p. 310.

40) 이병순(2009), 『채만식의 <여인천기>에 나타난 ‘모성’연구』, 『세계한국어문학』 2집, 세계한국어문학회, p. 227.

41) 사에구사가 도시카쓰는 『여인천기』가 전의(戰意)의 고양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적인 공허감”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에구사 도시카쓰(2000), 심원섭 옮김, 『한국문학 연구』, 베들북, p. 498.

드러내는 텍스트인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여자의 일생』은 심층적 수준에서 반-정치성을 드러냈던 『여인전기』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남성주체의 역사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인전기』에서 『여자의 일생』으로 계승된 화소를 검토해보도록 하자.<sup>42)</sup> 『어머니』에는 없었지만 『여인전기』에 등장한 인물 중 『여자의 일생』에도 나타나는 인물은 총 세 명이다. 그것은 진주의 부친인 임경식(『여인전기』)과 남병수(『여자의 일생』), 진주의 조모 송심당 노인(『여인전기』)과 강씨 부인(『여자의 일생』), 그리고 진주의 의붓남매 창수이다. 이들은 서사 속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층에서는 조금씩 다른 성격으로 변주되고 있다. 이 변경 사항을 일람해보고, 이들 인물들의 성격 변화가 준호를 둘러싼 서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아버지

아버지의 인물군은 주인공 진주의 정치적 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인전기』에서 진주의 아버지 임경식은 러일전쟁 여순전투에서 전사한 일본군이다. 그리고 진주의 조부는 ‘유신단체’의 일원으로 우정국 사건 이후 김옥균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여자의 일생』에서 할아버지 남진사는 유신단체의 일원으로 김옥균의 동지였다. 하지만 그는 일본으로 망명하지 않았으며, 추후 동학당에 가담했다가 전

42) 『여자의 일생』은 『어머니』에서 「따르는 정」과 「혁명가의 후예」의 두 장을 덧붙인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따르는 정」과 「혁명가의 후예」 두 장은 『여인전기』의 내용을 일부 반복하고 있다. 준호가 진주를 만나기 위해 처갓집을 찾아가는 「따르는 정」은 「새출발」의 내용과 유사하며, 러일전쟁에 참전한 부친 임경식이 소개되는 「유령산」의 장은, 동학운동과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던 부친 남병수가 소개되는 「혁명가의 후예」와 친연성을 보인다. 즉 『여자의 일생』은 『어머니』를 모본으로 하면서도 『여인전기』의 화소들을 계승했다.

사했다. 아버지 남병수의 경우 동학에 참가했다가 구사일생 한 뒤, 이후 만민공동회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임’가와 ‘남’가는 각각 일본과 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하지만 그들은 따르는 것발은 다를지언정, “충의로부터 우러나는 용맹”<sup>43)</sup>을 갖추고, “모름지기 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천하를 위하여 내 한 몸을”<sup>44)</sup> 버리는 사내들이다.

그런데 채만식이 임경식과 남병수를 묘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역사적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경식은 승전국의 군인이고, 남병수는 실패한 혁명가의 삶을 살았다. 임경식의 죽음은 승전의 밑거름이 되어 203고지에 “우렁찬 만세소리에 일장기가 펄펄” 날리게 한다. 하지만 남병수가 참가한 혁명은 승리의 환희를 불러오지 않는다. 만민공동회는 “군민이 한 몸이 되어 혁신을 도모하라는” 고종의 유고로 끝났다. 그리고 남병수는 “병원으로부터 집으로 나와 누웠다 일었다 하면서 시름시름 앓기 일년” 후에 죽었다. 여기에는 승리의 고양감이 부재할 뿐더러 남병수의 죽음이 ‘천하’에 보탬이 되었다는 어떠한 암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진주의 조부인 남진사로부터 유전된 운명이다. 남진사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날 때, “이중 삼중으로 실망과 비통한 가슴을 안고”<sup>45)</sup> 싸웠다. 이후 남진사는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우선 김옥균과는 달리 일본의 정치적 선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가 ‘선도’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완고’하고 ‘몽매’해서 개화운동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sup>46)</sup> 그는 동학에 참가하기는 하지

43) 『여인천가』, p. 388.

44) 『여자의 일생』, p. 276.

45) 『여자의 일생』, p. 277.

46) 여기서 채만식이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은 호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해방기에 작성된 또 다른 텍스트에서도 발견된다. 『옥랑사』에서 주인공 선용은 갑오경장에 참여한 무명병사의 죽음을 두고, “삼십년, 탄환과 화약연기 속에 목숨을 내던지고 그 소위 국사라는 것을 하여 온” 결과가 “들어오는 개화의 신평조를 억지로

만, “아름다운 주문을 외우고 괴상한 의식을 지내고 하는 것이 사위스런 미신행위 같아서 자못 불쾌하였다.”<sup>47)</sup> 남진사는 백성들을 위해 “나 한 몸의 결벽쯤은 희생”하겠다는 심정으로 동학에 뛰어들었지만, 그의 노력은 승리로 귀결되지 않았다. 채만식은 냉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태도로, 두 부자의 실패를 서술하고 있다.

## ② 할머니

진주의 할머니인 송심당 노인과 강씨 부인은 모두 소박을 맞아 돌아온 진주를 따스하게 맞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진주의 유일한 혈육으로 자애롭고 모범적인 여성이다.

쫓, 아모리 어미라로소니 장부의 하는 노릇을 뒷바치는 할지언정 구태어 막자 할 리야 있을꼬만서두 네 나이 어언 삼십이 넘지를 아니했나? 위천하자(爲天下者)는 불고가사(不顧家事)라니, 가사야 불고한다지만 후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 옛날 현다현 장수들도 평생을 전진 속에서 마쳤건만 제마다 후손은 끼치지 아니했든가?”<sup>48)</sup>

강씨 부인은 물론 일찍이 남편 남진사면 남진사, 아들 병수면 병수의 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을 하거나 불평을 한 적은 없었다. 여장 부답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력은 하지를 못할망정 그것을 말리며

---

막아, 나라로 하여금 놀러 태고의 꿈속에 묻히게” 한 것에 불과하고 탄식한다(채만식(1989), 『옥랑사』, 창작과비평사, p. 81). 무명군인을 추모하는 방식이 근대 민족주의 문화의 강력한 상징임을 생각할 때(베네딕트 앤더슨(2002), 윤희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p. 29), 채만식의 서사가 민족주의 내부로 회수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47) 『여자의 일생』, p. 287.

48) 『여인천가』, p. 397.

방해를 한 적은 없었다. 장부로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므로 만일 손자사위 준호가 압전히 가정이나 지킬 인물이 아니며 보였더라도 섭섭해 하거나 그런 자리를 택한 것을 불만히 생각할 리는 없었다. 다만 보아하니 솟기 많고 압전스런 것이 집안을 지키며 살림에 착실한 재목인 것 같아서 아무려나 다행이로다고 하는 것일 따름이었었다.<sup>49)</sup>

송심당 노인과 강씨 부인은 모두 정치적 격변기에 남편과 아들을 상실했다. 그들은 각각 “장부의 하는 노릇”과 “장부로 떳떳한 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의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두 인물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송심당 노인은 ‘후손’의 생산이라는 가부장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군인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정치적 맥락 속으로 포섭될 수 있다.<sup>50)</sup> 즉 후손을 낳아 후대의 장수로 양육하라는 권고로 읽힐 수 있다. 반면에 강씨 부인은 준호가 “집안을 지키며 살림에 착실한 재목”이라며, “압전히 가정이나 지킬 인물”인 점을 다행스러워 한다. 그것은 혈육 진주로 하여금 “작히 자신의 지난 바”를 겪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이다.

즉 강씨 부인은 송심당 노인에 비해서는 ‘대장부’의 삶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장부의 ‘불고가사’한 태도가 필연적으로 가족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만약 남진사와 남병수가 혁명가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강씨 부인은 미망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진주는 고아로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강씨 부인에게 천하를 위하는 일이란, 남성의 생명을 앗아가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여,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sup>51)</sup>

49) 『여자의 일생』, p. 297.

50) 황국명 또한 이러한 성격이 “파시즘의 남성숭배사상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황국명(1998), p. 166).

51) 이것은 1948년에 탈고한 『옥랑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태도이다. 『옥랑사』의



## ③ 창수

진주의 의붓 남매인 창수는 진주가 ‘새출발’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인전기』에서는 진주에게 신학문을 익히라는 조언을 했으며, 『여자의 일생』에서는 개가(改嫁)를 권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진주에게 새로운 세계관, 즉 문명개화의 이치에 대해 설파하는 인물이다.

창수의 개인적인 이력을 살펴보자. 창수는 『여인전기』의 시점에서는 노름에 가산을 탕진했고(1921년경), 『여자의 일생』에서는 막 그 노름에 빠지기 시작한 대목을 서술하고 있다. 『여인전기』에서 창수의 몰락(1916년경)은 “천품이 팔팔하고 마음이 크거나 할 뿐 꿈과 옥관의 점을 믿고 미두를 하는 재주”<sup>52)</sup>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자의 일생』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수준에서 서술되고 있다.

조선이 일본에게 합병이 되던 한국 말년 바로 전부터 조선에는 세 가지의 큰 사회적 움직임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치에의 관심이 그 하나요, 산업 즉 경제에의 관심이 그 하나요, 새로운 학문 즉 문화에의 관심이 그 하나요 하였다. 이 세 가지 관심 가운데 정치적인 것은 정복자의 ‘계다’ 짝에 짓밟혀 버렸고, 경제에의 관심과 문화에의 관심은 그것 역시 정복자의 핍박이 노상 없었던 바는 아니나, 그래서 부득불 기형적이기는 하였으나 아무튼 현실에

---

주인공 선용은 ‘개화당’에 가담하는가 하면, 동학의 싸움에 투신하고, 갑오경장, 을미사변 및 만민공동회 사건을 경험한다. 선용은 가진바 힘이 비범하고, 상당한 식견을 갖춘 영웅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선용의 방랑은 “늙으신 편모를 저버리고 나서는 불효”와 더불어 “아내를 저버리는 죄”를 함께 저지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부’의 길은 뚜렷한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채만식은 역사를 활용하여 국가주의적 영웅을 빚어내기보다는, 위천하자(爲天下者)는 불고가사(不顧家事)라고 하는 암부(暗部)를 조명하고 있다.

52) 『여인전기』, p. 427.

로 발전을 하여 나아갔다. 창수는 처음 그 새로운 학문에의 뜨거운 지향이 그와 같이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일단 꺾이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그러면 당분간 아직……’이라는 생각으로 경제 방면으로 행동 방향을 바꾸었다.<sup>53)</sup>

창수는 ‘문명개화’를 맞아 조선에 등장한 ‘세 가지의 큰 사회적 움직임’ 중 경제 방면에 투신했다. 이것은 집안의 사정으로 학문을 그만두고, 그리고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정치운동이 좌절된 것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의 ‘관심’은 기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창수가 다니는 ‘미두고장’인 ‘XX향’이란 다름 아닌 군산이다. 이곳은 채만식이 『탁류』를 통해 재현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장소였다. 여기서 창수의 “작은 것이나 구차한 것에 만족치 아니하고 크고 떳떳한 것을 부단히 경륜”<sup>54)</sup>하는 성정이 결국 비참한 말로를 초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세 인물은 『여인전기』에서 『여자의 일생』으로 개작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서사적 변형을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주체에 대한 부정, 혹은 그 이면에 대한 성찰이다. 아버지 세대의 “장부로 떳떳한 일”은 결국 가족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세대를 ‘고아’로 만들었다. 그리고 후속 세대(창수)의 “크고 떳떳한 것을 부단히 경륜”하는 행위는, 결국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왜곡되어 일종의 타락이 되었다.

이러한 서사적 추가사항은 『여자의 일생』의 남성서사를 『어머니』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다. 『여자의 일생』은 『어머니』의 대부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남성인물 준호의 성격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씨 부인의 소망과 기대는 준호의 비(非) 장부적 상태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한다. 『어머니』에서 준호의 나약함은 극복되어야 할 단점이었다. 즉 준호의 성장은 맥락상 역사적 주체로 거듭나는 환희나, 좌절의 안타까움으로 이

53) 『여자의 일생』, p. 267.

54) 『여자의 일생』, p. 267.

어져야 했다. 하지만 『여자의 일생』에서 준호는 결핍된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장부로 떳떳한 길”을 걸어가지 않음으로써, 미망인과 유복자를 남기지 않고, 가정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격변기의 아버규환 속에서 자신과 가솔의 안녕을 지키는 선택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여자의 일생』은 『여인천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의 정치적 서사를 허물고 있다. 『여인천가』가 그 표층적인 메시지와는 다르게 ‘가정분위’ 혹은 ‘일가족분위’의 삶을 조명하고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여자의 일생』 또한 노골적인 정치적 삽화 기저에는 ‘위천하지불고가사’에 대한 원망과 회피의식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일생』이 『여인천가』의 요소들을 변주하는 가운데 끌어들이는 주제였다.

## 5. (반)성장의 정치적 의미

지금까지 채만식의 『어머니』 개작들을 남성인물 준호의 성장서사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상의 해석에 따르면 『여인천가』와 『여자의 일생』은 표층적 차원에서는 정치적이지만, 심층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의 위험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경계하는 텍스트이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가정소설 및 풍속소설로 평가됐던 『어머니』는 상투를 자르고 신학문을 익혀 남성주체가 되려는 준호의 성장을 다루는 서사이다. 즉 『어머니』에서 『여인천가』로, 또 『여자의 일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사실 정치적 텍스트에서 (반)정치적 텍스트로 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서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볼 때, 준호가 죽음을 경험하고 강인한 남성주체로 ‘재생’했는지, 아니면 결국 성장의 싹을 상실했는지는 미지수다. 준호는 결국 어머니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혼인

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를 무릅쓰고 진주와 재결합할 수도 있다. 그가 주체의 성장(상투 콤플렉스의 극복)과 주체의 죽음(자살 시도)을 모두 시도했다는 점은 『어머니』의 결말을 여러 가능성에 접속시킨다.

분명한 것은 채만식이 『어머니』를 『여자의 일생』으로 개작하며 일부러 수수께끼를 풀지 않은 채 남겨뒀다는 점이다. 채만식은 『아름다운 새벽』을 통해서도 남성주체의 미래를 모호하게 만드는 급작스러운 서사의 중단을 시도했다. 『아름다운 새벽』은 1942년 『매일신보』에 총 20장의 구성으로 연재됐다. 그리고 1947년에 박문출판사를 통해 간행된 『아름다운 새벽』은 『매일신보』 연재본 11장까지를 담고 있다. 이 단행본은 말미에 “前篇終”이라는 표현으로, 후편의 존재를 암시했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sup>55)</sup>

그런데 『아름다운 새벽』이 종결된 지점은 주인공 임준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그는 엄모(嚴母)에게 억압되어 성장한 인물로, “소극적이고 심약한 인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56)</sup> 임준은 어려서 결혼하던 첫날밤 새댁 서씨가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망상에 휩싸여 그대로 도주했다. 그리고 1942년에 정상적으로 완결된 『매일신보』 연재본에서 임준은 오나미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여성공포증을 극복했음을 보인다. 그리고 결말부에 이르러 그는 오나미와 아들 준을 남기고 전지(戰地)로 떠난다. 이에 반해 1947년에 박문출판사에서 발행된 판본에서 임준은 오나미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서사는 임준이 21년 만에 아내

55) 아마 ‘친일’적 성격을 가진 서술들을 수정해야 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56) 『아름다운 새벽』은 1942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이다. 1943년에 『조광』에 실렸던 『어머니』의 직전에 작성된 만큼, 여러 차례 그 상호텍스트적 관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유찬은 『아름다운 새벽』과 『어머니』, 『여인천가』를 채만식이 기획한 3부작으로 보았다. 그는 이 일련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심약한 남성인물을 당대 조선을 나타내는 알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유찬(2011), 『『아름다운 새벽』의 알레고리 연구』, 『한국학연구』 39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를 참조.

서씨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임준이 성관계를 통해 ‘남성’으로 성숙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채로 마무리 되었다. 물론 이것은 작가 채만식이 개작에 부담을 느끼고, 친일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적당히 중단시킨 사례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채만식이 임준의 행로를 노골적인 민족주의로 채색하지 않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중단과 결말이 가지는 효과는 뚜렷하다. 준호와 임준의 운명은 모두 미정의 것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성장은 영원히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에게 닥칠 운명도 유예되었다. 『매일신보』판의 『아름다운 새벽』에서 임준의 성장은 결국 ‘아내를 저버리는 죄’, 나아가 아들을 고아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준호의 성장은 가족과 자신의 안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하지만 채만식은 의도적으로 서사를 중단시켰다. 그는 『여자의 일생』을 1부로 소개하고, 2부와 3부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새벽』은 예고된 ‘후편’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남성인물이 심약하고, 또한 미숙한 인물로 남을 경우 파국은 미정(昧定)의 사건으로 유예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채만식이 과거를 다루는 방식, 혹은 개작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채만식은 하나의 프로파간다에서 또 다른 프로파간다로 이동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글쓰기는 (무)의식적<sup>57)</sup>으로 그러한 경향을 피하고 있다.

이것은 채만식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한 표현이다. 채만식은 평생

57)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채만식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요컨대 채만식이 식민지말기, 그리고 해방기에 의도적으로 반정치적 텍스트를 생산했는지는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작성한 텍스트가 은밀한 방식으로 반정치적 서사를 지향하고 있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에 걸쳐 “모든 주체의 무한한 비약과 이성을 전제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 화려한 환상체계나 위대한 결론들을 냉소하고 비판”<sup>58)</sup>했다. 그렇다면 심신이 나약한 주인공은 채만식이 정치적 압력에 대응에 만들어낸 서사적 알리바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은 불행한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대장부’가 되지 않기 위해, 성장하지 않고 미성년으로 남는 모습을 보여준다. “왜소하고 나약하다 못해 소멸하는 존재”이자 역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획득하지 못한 남성인물의 성격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채만식이 프로파간다의 시대에, 그리고 반성의 시대에 선택했던 서사적 문법일 것이다.

---

58) 류보선(2010), 『냉소와 숭고의 이상한 가역반응 - 채만식 문학에 있어서의 친일과 반성의 문제』, 이주형 편, 『채만식 연구』, 태학사, p. 51.

## 참고문헌

### 【자 료】

『매일신보』, 『조광』

채만식(1989), 『채만식전집』 4권, 창작과비평사.

채만식(1989), 『채만식전집』 8권, 창작과비평사.

### 【논 저】

김홍기(2001), 『채만식 연구』, 국학자료원.

류동규(2013), 「채만식의 『어머니』 개작과 식민지 전사(前史)의 재구성」, 『어문학』 120호, 한국어문학회.

류보선(2010), 「냉소와 숭고의 이상한 가역반응 - 채만식 문학에 있어서의 친일과 반성의 문제」, 이주형 편, 『채만식 연구』, 태학사.

류종렬(2014), 『한국 근대소설의 탐구』, 푸른사상.

방민호(2001),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송하춘(1994), 『채만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신승희(2010), 「채만식의 『여인천가』론」, 『새국어교육』 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심진경(2006), 「통속과 친일, 이종동형의 서사논리 : 채만식의 『여인천가』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_\_\_\_\_(2002), 「채만식 문학과 여성 :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여인천가』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호, 한국근대문학회.

이래수(1986), 『채만식 소설연구』, 이우출판사.

이병순(2009), 「채만식의 <여인천가>에 나타난 ‘모성’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2집, 세계한국어문학회.

임윤정·전혜숙(2011), 「19세기말 단발령과 상투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4권 2호, 한복문화학회.

조성남·박선웅(2001), 「청소년 하위문화와 정체성 정치」, 『사회과학연구논총』 7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최유찬(2011), 「『아름다운 새벽』의 알레고리 연구」, 『한국학연구』 39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최유찬(2006), 『문학의 모험』, 역락.

황국명(1998), 『채만식 소설 연구』, 태학사.

사에구사 도시카쓰(2000), 심원섭 옮김, 『한국문학 연구』, 베틀북.

베네딕트 앤더슨(2002),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C. G. 용(2006), 한국용연구원 C. 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영웅과 어머니  
원형』, 2006, 솔.

F.Philip Rice (2001), 정영숙 · 신민섭 · 설인자 편역, 『청소년심리학』, 시그마프  
레스.

원고 접수일: 2016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1월 11일

계재 확정일: 2016년 11월 14일



Abstract

---

A Study on Chae Man Sik's Rewriting of *Mother*

— Centered on the (Anti)Initiation of a Male Character

Yu, Inhyeok\*

This study inspects Chae Man Sik's political (un)conscious and its way of fictionalizing *Mother* and its revised works *The War Story of a Woman* and *The Life of a Woman*. It focuses particularly on the male character Junho, since his role and function has been underestimated in previous studies. To date, analyses of the three texts have focused on the female character Jinju (Sukhi). The status of her family members are unrevealed in *Mother*. However, Jinju becomes a daughter of a military officer that participated in the Russo-Japanese war (*The War Story of a Woman*) and a daughter of a patriot revolutionist (*The Life of a Woman*). This difference is regarded as the key point of the texts.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Junho, the husband of Jinju, as the most converted character in the three novels. In the three texts, the sufferings of the women are monotonic. On the other hand, Junho's initiative story experiences dramatic change. In *Mother*, the initiative narrative exists. However, it vanishes in *The War Story of a Woman*. Lastly, it is reintroduced in *The Life of a Woman*. The consequence of this is a dramatic

---

\* Researcher, Dongguk University

changing of plots.

The important fact is that each text shows a different political context. In *Mother*, the text hints that Junho can become the subject of enlightenment by overcoming the old customs, as symbolized as the mother. In *The War Story of a Woman*, however, the chance of success vanishes. Lastly, *The Life of a Woman* intentionally presents an ambiguous ending.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writing of *Mother* was actually a process of de-politicalizing the texts, and not the other way around.